

# 투자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론을 내 놓고 있지만 실제로 검증된, 그리고 매우 확실한 철학을 가진 투자의 대가가 이야기 하는 성공의 요인은 실로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매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글 \_ 이재엽 | 재무설계사 E-mail : nest4000@naver.com C · P : 010-7708-4000

## 1. 피터린치의 각테일 이론

피터린치는 마젤란펀드를 운용한 전설적인 월가의 영웅입니다. 그는 이 펀드를 통해 세계 최고의 펀드매니저가 되었고 피델리티는 세계 3대 운용사의 반열에 오를 만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중에 재미있는 각테일 이론이 있습니다.

피터린치가 각테일 파티에 초대되어 자신을 소개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첫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펀드매니저라고 소개하여도 주식값이 한동안 내려가 있었기에 다시 오르리라 기대치 않고 있으므로 참석자들이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은 우르르 몰려와 그의 생계수단을 묻지만 피터린치가 뮤추얼펀드를 운영한다고 말하더라도 그들은 압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시점이며, 10루타 종목(피터린치는 펀드 매니저가 모든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운용성도가 좋은 펀드라도 상당수의 종목은 투자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이 10루타(10배의 상승) 또는 만루 홈런을 기록함으로써 전체적인 성과가 평균 이상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명의 사람들이 뮤추얼 펀드매니저와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치과의사와 충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한다면 그건 장세가 반전되려한다는 징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그의 생계수단이 무엇인지 듣고 난 후에도 좀더 머뭇거리다가 치과의사에게로 옮겨가는 단계입니다.

그 각테일파티에서의 화제는 주식보다는 충치에 대한 것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이때는 장세가 제2단계에서 15% 상승해 있을 때이지만 거의 관심을 두는 이가 없습니다.

세번째 단계에서는 장세가 1단계에서 30%는 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관심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치과의사는 무시한 채 저녁 내내 그의 주위에 둘러서서 이야기를 들으며 치과의사마저도 어떤 주식을 사야 좋을지 묻는 단계입니다.

파티에 모인 이들은 이미 모종의 주식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네번째 단계에서는 또 다시 그들이 그를 에워싸고 있지만 이번에는 피터린치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설명하고 그 뒤 며칠 뒤에 그들이 오히려 종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그러한 종목을 신문에서 찾아보면 이미 모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옆 사람들이 그에게 특정종목을 사라고 말해주고 그 또한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였으면 하고 아쉬워하게 된다면 그것은 장이 오를때까지 올라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있다는 징조입니다.

각테일 이론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에

늦게 뛰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투자자들이 침체에 주식시장에서 떠나고 활황기에 주식시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기투자를 이야기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러한 단기적인 장세 분석에서 벗어나 주식의 가치에 집중하는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 2. 필립 캐럿의 냉장고 이론

필립 캐럿은 워렌버핏이 “그는 내가 아는 한 가장 훌륭한 장기 투자 기록을 갖고 있는 투자자다. 만일 투자 자문가를 위한 명예의 전당이 생긴다면 최고의 10인에 들어갈 사람이다.(조선일보 2007년 5월 2일자)”라고 평가한 투자자입니다.

무려 102세를 살았던 캐럿은 하버드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후 1928년 미국 최초의 뮤추얼펀드 중의 하나인 파이오니아펀드를 설립하여 55년간 운용했던 운용전문가입니다. 펀드가 만들어 졌을 때 1만 불을 투자하였다면 배당금과 수익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할 때 투자 원금은 3700만 달러(3700배)로 불어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캐럿의 투자 방식은 가치있는 주식을 찾아내 오래 보유하는 가치주 투자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작지만 가치있는 기업들을 찾아내 투자하였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펀드매니저들에 대해서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캐럿은 생활 주변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라고 충고했습니다. 예컨대 그가 한 호텔에서 써본 비누가 너무 좋아 그 회사 주식을 사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캐럿은 주식투자자가 회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회사 최고 책임자가 자사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업계 선두 종목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최소 다섯 가지 업종에서 열 가지 서로 다른 주식을 보유하고, 내부 정보를 전염병 피하듯 하고, 외상거래는 절대 하지 말고, 조언은 절대로 구하지 말라고 주식투자자에게 충고합니다.

냉장고 이론이란, 바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잘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즉, 현명한 소비자라면 가장 저렴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물건을 구매할 것입니다. 냉장고를 만든 회사. 냉장고 속에 우유를 만든 회사. 햄이나 피자를 만든 회사 등등... 가장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회사야 말

로 가장 투자할 만한 회사가 아닐까에 주목해 본다면 냉장고 이론이 이해될 것입니다.

## 3. 1주를 살 때도 회사를 사듯 하라 - 워렌버핏

버핏은 1930년 미국에서 증권 세일즈맨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콜롬비아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평가투자(Value Investing)라고도 불리는 과학적 주식투자 방법을 세계금융계에 소개한 벤저민 그레이엄(Benjamin Graham:1894~1976) 밑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1956년 100달러로 주식투자를 시작, 한때 미국 최고의 갑부였으며 현재도 미국 2위의 갑부인 워렌 버핏은 전설적인 투자의 귀재로 평가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빌게이츠 재단에 전 재산을 기부한 사회 사업가로도 유명합니다.

1961년 Dempster Mill Manufacturing Co. 회장이 되었으며, 1965년 버크셔 헤더웨이(Berkshire Hathaway)를 인수했는데, 1967년 소형 보험회사 2개를 매입하면서 투자주회사로 변모하게 됩니다. 현재 그의 자산은 약 524억 달러로 추산되며, 빌게이츠(560억 달러), 멕시코 기업인 카를로스 슬림(530억 달러)에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있는 주식을 발굴해 매입하고 이를 오랫동안 보유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평생 보유하여 가지고 갈 만큼 투자 대상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곳에만 투자를 행하였습니다. 버핏은 단기적인 미래의 시장 상황에 대해 예측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가장 가치있고 투자할 만한 회사가 어디인지를 찾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뿐입니다. 그의 투자 방식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종목이라면 단 10분이라도 보유하지 말라.”입니다.

## 4.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이상하게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석유가격이 오르는데도 주가가 오르고,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율이 떨어지는데도 주가가 오르고, 기업실적이 좋아 졌음에도 주가가 내리는 현상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과거의 현상을 설명할 뿐 미래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하지만 이는 참고일 뿐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신념과 올바른 재정관리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